

문화산책

박성언

음악감독



내가 가끔 특정상황에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나의 현재 상태로의 답변은 ‘보람과 영감을 느끼고 싶어서요’ 정도 되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AI를 사용하는 건 이제 보편적이다. 내 주변의 음악인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음악을 작곡했는데 꽤나 그럴듯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데모 음원을 가지고 정식 편곡 작업이나 녹음작업을 의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 그리고 AI로 작곡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작곡가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선배님도 계셨다.

우리에게는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AI로 영화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약된 비용과 시간을 창의적인 또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나 또한 음악 외의 몇몇 작업을 할 때 잠시 AI를 활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음악

공연 관련 포스터 만드는 작업을 할 때 AI를 사용했었는데 나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웹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디자인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용이했다. 내가 AI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연필로 스케치를 그려서 전문가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아직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수록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어쨌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AI로 노래 만들기, AI로 포스터 디자인하기’ 등등 여러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진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SNS에 프로필 사진을 실제 사진보다 지브리풍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실감한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영화 ‘웃웃 토도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곳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곳을 탄생시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난 2023년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AI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대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이런 걸 보고 흥미롭게 여길 수는 없다. 이걸 만든 사람은 고통이 뭔지 전혀 모른다. 정말 역겹다. 나는 이 기술을 내 작업과 결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에서 고통이라는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창작자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형태를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AI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 내가 작곡을 할 때 나는 나의 내면에 있는 영감과 경험과 감각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 과정과 시간을 통해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각을 깨우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설사 이런 과정이 없이 AI를 통해 순식간에 만들어낸 음악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기쁨과 희열과 보람과 영감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나는 뮤지션 이전에 인간이다. 훌륭한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 내야 하는 사업가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인간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이 나에게 주는 답은 무궁무진하고 아름답다. 누구나 AI를 통해 예술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많은 고뇌와 고통을 동반하며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얻어내는 보람과 영감의 영역을 아작까지는 AI에게 선물 받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예술가의 삶은 보여주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삶일 것이다. 웬지 오늘날 AI의 유혹을 뿌리치고 창작의 고통과 친구가 되어보고 싶어진다.

기고

강나루

계간 '시와사람' 편집장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약 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문명의 전환점 앞에 섰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이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데, AI는 과거 고도로 연마한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복잡한 작업을 대중의 추상적인 명령만으로도 제공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는 마치 훈민정음 반포로 인해 문맹이었던 대다수 백성이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변화와 닮았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문자 발명을 넘어, 지식과 표현의 대중화를 이끈 혁명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어는 유례없는 문자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자국어로 대학 교육을 물론 고도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 빈국이라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없었다면 ‘언적자원’마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AI의 발전은 지켜보는 여러 집단에서는 대격변을 예측하고 있다. 코딩, 데이터 분석, 번역, 창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AI의 보조를 받으면 누구나

바벨탑을 무너뜨린 여호와와 AI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AI의 발전이 현대의 수많은 기술적 진보 중의 하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마치 쉬운 문자의 보급이 수많은 목소리를 기록하게 했듯, AI 또한 다양한 표현과 사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밋빛 미래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 훈민정음은 전체군주였던 세종이 백성을 위해 제한 없이 완전하게 개방한 문자 체계였다. 반면, 현재의 AI는 거대 기업들이 각기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 조건을 설정하며, 핵심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전한 공공재로서 기능한 한글과 달리, AI는 오픈소스 진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사유화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대중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근본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구조이자,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같은 한국어 안에 서도 지역 방언, 구전설화 등 수많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다름이야말로 문화적 풍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임을 알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또한 유사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기계어에 가까운 어셈블리어에서 시작

해, 점차 인간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C언어, 파이썬 등으로 변화해 온 흐름은, 인간의 몸짓 언어가 점차 음성과 문자 구조를 갖춘 언어로 진화하고, 또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구조의 언어로 분화한 과정과 닮아 있다. 문법과 뉘앙스가 다른 인간의 수많은 언어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비효율의 극치일 수 있다. 만약 여호와가 효율만을 원하는 신이었다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므로써 단 하나의 언어만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졌고, 인류는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풍요를 발견해 왔다.

AI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방식으로만 사고하고, 하나의 표현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인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AI의 발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표현과 사고의 대중성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인간을 대체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AI가 훈민정음처럼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되려면, 기술의 공공성과 접근 가능성, 개방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효율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름과 느낌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불완전한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 AI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마주한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또 하나의 훈민정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의 무너지지 않은 바벨탑으로 남게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독자투고

“불나면 소화보다 대피 먼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끄려 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보다 신속한 대피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다.

초기 소화 시점을 놓치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그 사이 대피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는 대피가 늦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불은 끄는 것’보다 ‘불에서 피하는 것’이 먼저라는 교훈을 얻었다.

화재 발생 시 비상벨 작동, 화재 사살 전파, 대피 경로 확보, 신속한 이탈은 생명을 구하는 핵심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대비는 철저히, 반응은 침착하게, 대피는 빠르게. 이 세 가지가 우리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돼 줄 것이다.

모두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 ‘불나면 대피 먼저!’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OPINION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사설

광주시 인구 140만명 붐과 ‘코앞’이라는데

광주시 인구 140만명 붐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면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140만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1만4862명)보다 1만403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광주 인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간 140만명 선을 유지해 왔지만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은 6만7462명의 인구가 줄어 들었다. 2014년 147만5884명이던 인구수가 2024년 140만8422명이 된 것이다. 매년 평균 6700여명이 광주를 떠난 것이다.

특히 최근 6개월 간 인구 감소 폭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 두달 안에 1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 인구는 2024년 11월 140만9624명, 2024년 12월 140만8422명, 2025년 1월 140만7097명, 2월 140만5226명, 3월 140만2478명, 4월 140만827명 등 6개월새 8797명이 줄어든 것이다.

월 평균 1465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 세대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 청년(20~34세) 인구는 2020년 29만1507명, 2021년 29만869명으로 소폭 감소하다 2022년 28만6441명, 2023년 28만851명, 2024년 27만4624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또 출생률 저하, 고령자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제2차 광주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지속 가능 일자리로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손자녀 돌보미, 초등학부보 10시 출근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출생·양육·돌봄 분야의 선도적 정책들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조성하고 있다.

광주 인구 지키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생활응급창구 ‘공공심야약국’ 확대해야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문을 여는 약국을 말한다.

심야 시간대에 약사들이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주고 복약지도도 도와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물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8년 대구시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약국 2만5276곳 중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1%인 25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38곳, 경기 76곳 등 대도시권에 몰려 있다.

그나마 광주는 공공심야약국이 오렌지약국(동구), 종원종로약국(서구), 나래약국(남구), 해오름은누리약국(남구), 백림약국(북구), 라온약국(광산구) 등 6곳이나 있다.

이들 약국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의약품 판매·조제 10만8694건, 진화 상담 7276건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남구(2곳)를 제외하고 각 구별로 1곳 밖에 없어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를 반영해 올해 내로 2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전남이다. 도내 22개 시군중 담양·곡성·보성·화순군 등 농촌 지역 12곳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농촌 의료 인프라 취약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인구 유지와 귀농·귀촌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약 등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 응급창구’이자 ‘공공보건의 거점’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정부가 이들 약국에 대해 심야시간대 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지만 인건비·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 맞춤형 심야약국 확충, 모바일 약국 서비스 시범 도입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